

주시경과 국어 문법

최규수

1. 생애

주시경은 1876년(고종 13) 12월 22일에 태어나서 1914년 7월 27일 서른 아홉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처음 이름은 상호(相鎬)요, 나중 이름은 ‘한힌샘’이다.¹⁾ 그는 황해도 봉산군 쌍상면 천사리 무릉골에서 아버지 학원(鶴苑)과 어머니 전주 이씨의 4남 2녀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의 나이 12살 때(1887) 큰아버지 학진(鶴鎭)의 양자로 서울에 와서, 거기서 줄곧 살았다.

선생의 교육 경력은 한문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7살(1882)부터 12살(1887)까지 4년 6개월 동안 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웠으며, 서울에 와서 12살(1887)에 이회종(李會種)댁 서숙(書塾)[글방]에서 한문 8개월, 13살(1888)에 승지(承旨) 심차신(沈車臣)에게 한문 1년간, 다시 14살(1889)부터 18살(1893)까지 진사 이회종에게 한문 4년 3개월을 배웠다. 그리고 19살(1894)에 귀향하여 아버지에게 다시 두 달 동안 한문을 배운다. 합하여 7살부터 18살까지 10년 7개월 동안 한문을 배운 것이다.

18~19살(1893. 4.~1894. 2.)에는 정동(貞洞)의 배재학당(培材學堂)에서 강사 옥계(玉溪) 박세양(朴世陽), 회천(晦泉) 정인덕(鄭寅德)에게 산술(算術)·만국지지(萬國地誌)·역사(歷史)·한문(또는 英字, 時事)을 배웠으며, 19살(1894. 8. 1.)에 뜻한 바 있어 머리를 깎고 배재학당²⁾에 입학하였다. 20살(1895. 7.)에 인천 관립 이운학교(利運學校) 속성과(7개월)에 입학하여 21살(1896. 1.)에 이운사 마산지사장으로 부임하였으나 임명된 지 3일만에 정부의

1) 그 밖의 이름으로 ‘백천(白泉), 한현매, 태백산(太白山)’이 있다.

2)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기관. 1885년 미국의 북감리교 선교부 선교사 아펜젤러가 창립했다. 기독교인과 국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사상적 훈련과 체육 훈련에 주력하였다.

변동으로 폐지되어 3월 13일에 사퇴하였다. 그 해(1896. 4. 1.)에 배재학당에 재입학하여, 서재필의 만국지지 연속강의 1년(1896. 5.~1897. 6.)을 졸업하였으며, 25살(1900. 6. 16.)에 배재학당 보통과 5년을 졸업하였다. 또 그 해(1900. 11. 26.)에 흥화학교 야간양지과(夜間量地科)(8개월)를 졸업하였으며, 31살(1906. 11. 12.)에는 양생방(養生坊) 창동(倉洞) 정리사(精理舍)(야간)에 입학하여 3년 동안 수리학을 배웠다. 그리고 1900년~1905년에 미국북감리교 스크랜톤의 한어 교사로 있으면서, 영어와 위생을 배운 듯 하다.

한헌샘의 사회 활동은, 「독립신문」³⁾의 회계사무(뒤에 총무로 전보된다) 겸 교보원(校輔員)(1896. 4.~1898. 9.)으로 일하면서 시작된다. 그 뒤 독립협회⁴⁾의 위원, 상동 사립청년학교 총무(1897. 12. 5.), 제국신문사⁵⁾ 기자(1899. 10. 6.~12.), 「가정잡지」의 교보원(1906.5.), 서우학회(西友學會)⁶⁾의 협찬원(協贊員)(1906. 11. 8.), 국문연구소⁷⁾의 위원(1907. 7. 8~1910. 8. 29.), 대한협회⁸⁾의 교육부원(1908.3.), 여러 학교의 강사 또는 교사로, 여러 강습소의 강사 따위의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연구와 사회 활동으로 너무 바빠 밤 한

3) 1896년 4월 7일 창간. 서재필이 주동이 되어 발간했는데, 독립협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유길준이 후원했다. 주3회 간행으로, 22cm*33cm, 4면으로 되었다. 주로 1면은 논설, 2면은 관보·외국 통신·잡보, 3면은 잡보·선박 출항표·광고 등이 실렸고, 4면은 "The Independent"란 제호로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는 영문판이었다. 4면 외에는 전부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다. 1898년 서재필이 물러서고 윤치호·주시경·이상재 등이 관여하면서 일간으로 바뀌었으나, 그 안의 사람들이 결성한 「국문동식회」의 회원들이 독립당의 혐의로 달아나 2년 7개월에 폐간되었다.

4) 1897년 12월 5일에 서재필이 창설한 단체. 독립신문 창간, 독립문 건설,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자주 독립과 자주 민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1898년 12월 5일에 정부에서 강제로 해산하였다.

5) 1898년 8월 창간. 이종일·심상익·염중모·이승만 등이 간여했다. 기본 정신은 황성신문과 같았으나, 황성신문이 상류층을 상대로 한 반면에, 중류 이하의, 특히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다. 민중에게 자주 독립과 애국 사상을 고취하다가, 1910년에 강제로 폐간당했다.

6) 1960년 10월 경에 조직된 애국 단체. 평안도 출신을 중심으로 정운복·김명준·이갑·유동열 등이 조직하였다.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독립정신을 깨우치는 데 노력하였으며, 1908년 1월 이준 등의 북흥학회와 합하여 서북학회로 되었다.

7) 1907년 7월 학부 대신 이재곤이 황제의 제가를 얻어 학부 안에 개설한 국어·국문 연구 기관. 국문의 원리와 연혁, 현재의 행용(行用), 장래의 발전 등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1907년 1월 6일의 제1차 회의를 연 뒤 1909년 12월 27일의 최종 회의까지 23회의 회의를 열었다. 1910년 해체되었다.

8) 오세창 등이 일진회에 대하여 창설한 대한자강회의 후속 조직으로서 1907년 11월에 조직되었다. 기관지로 「대한민보」가 있는데, 1910년 폐간되었다.

시 반부터 다섯 시쯤밖에 잠을 자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10년을 전후하여 이미 국운이 기울고, 많은 동지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해외로 망명하여, 국내에는 선생과 뜻을 나눌 만 한 동지들이 더물었다. 이에 선생은 해외로 망명할 결심을 하고 그 준비를 하던 중에, 허로병(虛勞病)⁹⁾으로 돌아가셨다.

한헌샘은 4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나라의 근대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다 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동학혁명이 일어난 1894년부터 시작되는데, 한헌샘의 일생도 이 해를 기점으로 전환기를 이루고 있다.

교육 경력부터가 그러하다. 한헌샘은 18살인 1893년까지 무려 10년을 한문을 배웠으나, 19살인 1894년부터는 신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여, 여러 학교에서 인문·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까지 배우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익혔다. 그런 가운데 한헌샘은 15살 때(1890) 한글을 처음 배워 토 ‘와, 과’의 구별을 깨닫자, 우리글이 이치를 잃은 줄을 알고, 우리 말글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7살(1892)에는 한문을 배우면서 우리말로 새기는 것에 유의하여 어려운 한문 대신에 우리글로 쓸 것을 생각하고, 그 연구에 뜻을 세운다. 이렇게 보면, 한헌샘 개인의 역사는 1894년 쫓을 기준으로 그 앞의 ‘한문 학습의 시대’와 그 뒤의 ‘한글 연구의 시대’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말 연구의 역사를 보면, 정부 기관에서 한글에 관한 문제로 학부 안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여(1907) 국문을 연구하게 한 것은 세종대왕이 정음청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래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다.

한헌샘은 다른 한편으로 정치가(배재학당 협성회¹⁰⁾와 독립협회에서의 활동), 사상가(계몽 사상의 보급), 교육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렇게 한헌

9) 몸과 마음이 허약하고 피로해서 생기는 병.

10) 서재필의 지도로 1896년 11월 30일에 조직된 배재학당의 학생 단체. 한헌샘, 이승만, 전덕기 등이 참여하였는데, 한헌샘은 전적(典籍)과 회보 찬술원(撰述員)의 일을 맡았다.

샘은 이러한 전환기적 시대의 중심에 서서, 크게는 우리나라의 역사, 작게는 우리말의 역사의 부름에 부응하여, 짧은 삶을 불살랐던 것이다.

그렇지만, 한힌샘의 모든 활동의 출발점은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연구에서 출발한다. 한힌샘에게 있어서는 우리말과 우리글은 그 시대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화두(話頭)와 같은 것이었다. 그 시대가 제기한 여러 화두 가운데서, 한힌샘의 화두는 한글과 국어 연구였다. 모든 화두들이 하나로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화두가 해결되면 모든 화두가 해결되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의 문제에 온 힘을 쏟아 부음으로써, 그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의 자작시인 ‘큼과 어려움’은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 있어, 새겨 둘 만 하다.

적음으로 큼을 이루고
쉬움으로 어려움을 하나니
큼을 적음에서 피하고
어려움은 쉬움에서 힘쓸지로다
큼을 적음에서 피하며
어려움을 쉬움에서 힘쓰는 이는
일어날 것이요
큼을 적음에서 웃으며
어려움을 쉬움에서 잊어버리는 이는
넘어지리로다

2. 사상

한힌샘은 『국어문법』(1910)의 서문에서 나라의 땅과 백성과 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¹⁾

11) 인용된 글은 본 뜻을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금 고쳤다.

其域은 獨立의 基요 其種은 獨立의 體요 其言은 獨立의 性이라. 此性이 無하면 體가 有하여도 其體가 아니요 基가 有하여도 其基가 아니니 其國家의 盛衰도 言語의 盛衰에 在하고 國家의 存否도 言語의 存否에 在한지라.

그리고 「한나라말」(1910)에서 나라와 말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다. 한 말을 쓰는 사람과 사람 끼리는 그 뜻을 통하여 살기를 서로 도와 줌으로 그 사람들이 절로 한 덩이가 되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큰 덩이를 이루나니, 사람의 제일 큰 덩이는 나라라. 그러하므로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이러하므로 나라마다 그 말을 힘쓰지 아니할 수 없는 바니라.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니 이지러짐이 없고 자리를 반듯하게 잡아 굳게 선 뒤에야 그 말을 잘 지키나니라. 글은 또한 말을 닦는 기계니 기계를 먼저 닦은 뒤에야 말이 잘 닦아 지나나니라. 그 말과 그 글은 그 나라에 요긴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나, 다스리지 아니하고 묵히면 덧거칠어지어 나라도 점점 내리어 가나니라. 말이 거칠면 그 말을 적는 글도 거칠어지고 글이 거칠면 그 글로 쓰는 말도 거칠어 지나나니라. 말과 글이 거칠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이 다 거칠어지고, 말과 글이 다스리어지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도 다스리어 지나나니라. 이러하므로 나라를 나아가게 하고자 하면 사람을 열어야 되고, 나라 사람을 열고자 하면 먼저 그 말과 글을 다스린 뒤에야 되나니라.

또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글은 그 나라 곧 그 사람들이 무리진 덩이가 천연으로 이 땅덩이 위에 홀로서는 나라가 됨의 특별한 빛이라. 이 빛을 밝히면 그 나라의 홀로 서는 일도 밝아지고 이 빛을 어둡게 하면 그 나라의 홀로 서는 일도 어두워 가나니라.

위 글에서 보면 한힌샘은 한 나라의 말은 ‘독립의 성(性)’이요, ‘나라 됨의 특별한 빛’으로서, 말은 그 말을 쓰는 나라의 운명과 같이 함을 역설하였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언어와 민족 또는 국가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논하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적 유산은 거의 그 나라의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현재의 역사는 그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그 나라의 말은 그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이자 ‘힘’인 것이다. 한힌샘은 이러한 말에 대한 사상을 바탕으로, 학문적으로는 우리말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국어문법』(1910), 『말의 소리』(1914) 등을 펴내었으며, 실용적으로는 ‘한글 전용’을 역설하고, 우리말에 대한 ‘사전 편찬’과 ‘맞춤법, 띄어쓰기’를 주장하고, 또 몸소 실천하였다.¹²⁾ 한힌샘의 한글 전용에 대한 주장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本朝 世宗朝께서 天縱의 大聖으로 國語에 相當한 文字가 無함을 憂慮하사 國文 二十八字를 親制하시매, 字簡音備하여 轉換記用에 不通함이 無하니, 此는 天然特性의 我國文이라. 國文이 成한 후에 國語로 著作하는 文字가 繼出하여 其籍이 頗多 하나 오히려 國文을 鮮用하고 漢文을 是崇하더니, 往年 甲午에 科擧法을 廢한 後로 漢文의 盛勢가 退縮하여 學習하는 者가 稀貴할뿐더러, 近者에는 我國에 教育新法이 行하매 前日과 如히 專業하고자 하나 不得할지니, 漢文의 衰殘은 免하기 不能한 바요, 國文은 近來로 公私間에 盛用하니 可히 漸進의 運을 當하였다 謂할지라.(『국어문법』의 서에서)

또 글자들을 모아 옥편을 꾸밀 때에 ‘문 문’이라 할 것 같으면 도무지 한문을 못 배운 사람이 한문으로 ‘문 문’자는 모르나 ‘문’이라 하는 것은 열면 사람들이 드나들고 닫히면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는 것인 줄로는 다 아니 ‘문’이라 하는 것은 한문 글자의 음일지라도 곧 조선말이니 ‘문’이라고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또 ‘飲食 음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실 음, 밥 식’자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의 입으로 먹는 물건들을 ‘음식’이라고 하는 줄로는 다 아니 이런 말도 또한 마땅히 쓸 것이고, ‘山 산’이라고 하든지 ‘江 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말들은 다 한문 글자의 음이나 또한 조선말이니 이런 말들은 다 쓰는 것이 무방할뿐더러 마땅히려니와 만일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문의 음으로 써 놓은 글자의 뜻을 모를 것 같으면 단지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만 알지 못할 뿐이 아니라, 「한문을 아는 사람일지라도 한문의 음만 취하여 써 놓았으므로 흔히 열 자(字)면은 일곱이나 여덟은 모르나니 차라리 한문 글자로나 쓸 것 같으면 한문(漢文)을 아는 사람들이나 시원하게 뜻을 알 것이라.」 그러나 한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찌하리오.

12) 실제로 ‘독립신문’에서는 지금처럼 한 칸을 비워 띄어 쓰고 있으며, 『국어문법』(1910)이나 『한나라말』(1910), 『말의 소리』(1914)에서는 ‘, ’나 ‘ㅇ’ 등의 부호를 써서 띄어쓰기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즉, 불가불 한문 글자의 음이 조선말이 되지 아니한 것은 쓰지 말아야 옳을 것이다.(「독립신문」에 실린 ‘국문론’에서)¹³⁾

그런데 한힌샘이 이렇게 한글 전용을 주장하면서도 그의 글들에는 한문투의 글이나 한자가 섞인 글들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까닭은 한힌샘이 지금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무려 10년여를 한문을 배웠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어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한힌샘은 한문에 통달한 사람이고, 따라서 한자를 쓰거나 한문투의 문장에 익숙했다. 그러나 한문을 배우면서 우리말글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부터 한글로만 쓰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손에 길들여진 한자나 한문투의 문장을 얼른 버리지는 못했다. 실제로 한힌샘의 초기의 글들은 한문으로 된 것들이 많고, 순 한글 문체를 지향한 『국어문법(國語文法)』의 제목조차 한자로 되어 있으며, 또 ‘서(序)’와 ‘국문(國文)의 소리’ 부분은 한문 투로 되어 있고, 『국어문법』의 뒷 부분도 한자가 조금씩 섞여 있다. 한힌샘의 본래 뜻과는 달리 이렇게 된 사정은 『국어문법』의 ‘이 온 글의 잡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다 漢文을 섞어 만들었던 것인데 이제 다 우리나라 말로 고치어 만들고자 하나 비뻔으로 말미암아 다 고치지 못하므로 틈틈이 漢文이 있음은 이 까닭이라.

3. 연구와 사회 활동

191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국어’의 시대에서 ‘조선어’의 시대로 접어든

13)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둘 일이 있다. 『周時經學報』 창간호(1988)의 「『周時經學報』를 창간하면서」에서, 「『』」안의 글을 들어(「『』」는 글쓴이가 더한 것이다), 그 정신이 “단순한 말만들거나 한글專用에만 있는 것이 아니”였으며, “오늘날 외형적인 한글專用이 周時經精神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요 모독”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글의 전체 문맥이나 다른 글들에서 보면 한힌샘이 한글 전용을 주장한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주시경학보』의 그러한 발언이야말로, 한힌샘에 대한 ‘왜곡이요 모독’이 될 것이다.

다.¹⁴⁾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몸으로 부대끼면서, 우리말글을 올곧게 살리기에 온 마음과 몸을 바치고 있던 한힌샘은 얼마나 안타까웠으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힌샘은 한편으로는 단 한 분의 스승도 없이 혼자서 우리말글을 연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말글의 계몽과 교육에 힘쓴다.

먼저 한힌샘의 우리말에 대한 연구의 과정과 성과를 보자. 한힌샘은 15살이던 1890년에 한글을 처음 배우고, 17살이던 1892년에 우리말글의 연구에 뜻을 세워, 1893년에 국어문법을 저술하기 시작한다. 21살이던 1896년에 독립신문사에 근무하면서 우리말의 표기법 연구를 위하여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고(1906년에 해산함), 「국문식」 1편을 저술하기 시작한다. 1897년에는 독립신문에 「국문론」(약 8,400자)을 2차에 걸쳐 투고하였다. 23살이던 1898년 12월 31일에 드디어 『국어문법』¹⁵⁾을 대강 완성하였다. 30살이던 1905년에 상동 사립청년학원 2학년 유만겸의 필기로 된 『국어문법』(19장)을 남겼다. 1906년에는 유인물로 된 『대한국어문법 국문강의』(1+68+5장)를 발표하였다. 1907년에는 『서우』(西友) 제2호에 「국어와 국문의 필요」(4장)를 발표하고, 「황성신문」¹⁶⁾에 「필상자국어언어」(必尙自國言語)를 7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34살이던 1909년에는 『국문초학』을 발행하였으며, 1910년에는 『국어문법』(4+118쪽)을 박문서관에서 발행하고, 「한나라말」 등을 『보중친목회보』(普中親睦會報) 제1호에 발표하였다. 『국어문법』은 1911년과 1913년에 『조선어문법』이란 제목으로 재판된다. 39살이던 1914년에는 『말의 소리』(25+5+2장)를 신문관에서 자필 석판으로 발행하였다.

그 밖에 1906년과 1907년 『가정잡지』에 ‘국문, 렉스, 지디문답, 평론, 위칭’ 등을 7회에 걸쳐 발표하였다. 1907년에는 중국 양계초의 『安南亡國史』를 여름

14) 1910년에 출판된 『국어문법』은 1911년과 1913년에 『조선어문법』이란 제목으로 재판된다.

15) 초고는 발견되지 않았다. 1905~1908년의 초고로 추정되는 『말』이 있다.

16) 1898년 9월 5일에 창간. 장지연·남궁익나수연 등이 관여했다. 원래 같은 해 3월 「경성신문」이란 이름으로 창간되었는데, 4월 6일자 제11호부터 「대한황성신문」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황성신문」으로 되었다. 이 사이에 관계한 인사들도 많이 바뀌었다. 이 신문이 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문에도 조예가 깊은 애국 계몽 사상가들에 의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독립신문」과 성격상 대조된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논설로 정간되었다가 수 개월 후 속간되었으나, 1910년 폐간되었다. 일반 논조에서도 항일 애국적이었거니와 이러한 사상을 노래한 가사(歌辭)를 많이 수록하였다.

부터 번역하기 시작하여, 11월에 『월남망국사』란 제목으로 박문서관에서 발행하였다.

이러한 개인적인 연구 활동과 함께, 1908년 7월 12일~1910년 8월 29일에 걸쳐 학부의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 맞춤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한힌샘은 25살이던 1900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학교와 강습소의 교사, 강사와 여러 학회의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미국북감리교 의료선교사 스크랜톤의 한어 교사(1900.1.~1905.9.), 상동 사립학숙에 국어문법과를 별설, 교수(1900.2.~1901.2.), 스크랜톤 목사의 병원 보구여관 내 간호원양성학교 교사 겸 사무(1904. 3.~1905. 1.(또는 1904. 6.)), 신민회¹⁷⁾ 기관학교 상동사립청년학원(1904. 10. 전덕기 설립) 교사(1905. 2.~1907. 6.), 상동사립청년학원 학감(1905. 9.~1907. 6.), 상동 공옥학교 교사(1906. 5.(또는 1907. 5.)~1911. 3.), 서우학교(협성학교 전신) 속성반 국어 교사(1907. 1.(또는 11.)), 이화학당 강사(1908. 11.(또는 10.)~12.), 박동 사립고등명신여학교(1909. 7. 개명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1908. 12.), 수진동 사립홍화학교 강사(1909. 2.~1911. 3.), 소격동 사립기호학교 강사(1909. 2.), 관현 사립휘문의숙 강사(1909. 4.), 보성중학교 강사(1910. 1.), 수동 강희학교 강사(1910. 4.), 정동 배재학당 강사(1910. 9.), 오성학교(협성학교에서 개명) 강사(1910. 10.), 안동 사립중앙학교(사립기호학교, 사립강희학교 합병) 강사(1910. 11.).

이런 바쁜 가운데서도, 한힌샘은 ‘하기 국어강습소’를 열어 우리말글의 교육에 힘쓴다. 제1회 하기 강습소는 1907년 7월에 상동 사립청년학원 안에 개설했는데, 음학·자분학·격분학·도해학·변체학·실용연습 6과를 매일 새벽에 9주 동안 강습하였다. 이 강습소는 1910년까지 해마다 계속되었다.¹⁸⁾ 그리

17) 1906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됨을 듣고 미국에서 귀국한 안창호가 동지들을 규합하여 만든 독립운동단체. 동지로는 이갑·전덕기·양기탁·안태국이동녕·이동휘·조성환·신채호·노백린등이 있다. 목적은 정치경제문화교육의 각 방면에 걸쳐 진흥 운동을 전개하여 국가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었고, 조직 방법은 2인 이상 서로 알지 못하게 비밀을 보장하여 회원 수가 800여명에 이르렀다. 평양에 대성학교,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웠으며, 주요 도시에 서점, 도자기 회사 등을 세웠다. 1912년 총독 테라우찌 모살 사건의 혐의로 박해를 당하여 회원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해외로 망명하여 자연 해체되었다.

고 1907년 11월에 상동 사립청년학원 안에 국어야학과 설치하고, 교수를 역임했으며, 1910년 6월에는 사동 사립사범강습소를 보성학교 안에 개설하여 소장에 취임하고, 음학·격학·자학·변체 4과를 가르쳤다. 그 해 7월에는 황해도 재령군 남호(또는 나무리) 강습소 특설 국어전수과에 강사로 일하였다.

이런 가운데 1908년 8월 상동 사립청년학원 안에 ‘국어연구학회’(또는 ‘국문연구회’)가 창립되고(1910년 폐지된다), 1909년 10월의 총회에서 한힌샘을 문법저술위원으로 뽑고, 강습소를 1년제로 운영하되, 일요일 하오에 개설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강사는 한힌샘으로 결정되었다. 교육의 내용은 처음에는 소리·기갈·듬난 3과였으나, 제2회 강습소부터 익힘이 더하여졌다. 한힌샘 개인의 힘으로 운영되던 강습소의 일이 학회의 지원을 받아 명실상부한 우리말글의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여 자리를 잡은 것이다.

국어연구학회는 1911년 9월에 총회를 열고, 학회 이름을 ‘배달말글몸음’(조선언문회)으로 고치고, 강습소를 ‘조선어 강습원’으로 고쳤다. 1913년 3월에 학회 이름을 ‘한글모’로 바꾸고, 1914년 4월에 조선어 강습원을 ‘한글 배곧’으로 바꾸었다.

국어연구학회 제1회 강습소는 1909년 11월(또는 9월)에 상동 사립청년학원 안에 중등과 1년제로 개설되어, 1910년 6월(10개월)에 김화엽, 양주승 등 20명의 인재를 배출하였다. 제2회 강습소는 1910년 10월에 사동 천도교사범강습소 안(뒤에 보성학교로 이전)에 개설되어, 1911년 6월(9개월)에 최현배, 김두봉 등 51명의 인재를 배출하였다.

배달말글몸음의 조선어 강습원은 1911년 9월에 보성중학교 안에 설치되었는데, 중등과 제1회 190명을 모집하였다. 1912년 3월에 중등과 제1회 수업식에서 이규영, 이병기, 권덕규, 박승두, 신명균, 최현배, 윤복영, 송창희 등 125명이 수료하였다. 그리고 중등과 수업생이 고등과로 진학하고, 제2회 중등과를 모집하여, 학생 수가 200명이었다. 드디어 조선어 강습원은 1913년 3월에

18) 제2회 하기 강습소는 매일 새벽 90분씩 8주간을 강의하였고, 제3회 하기 강습소는 매일 새벽 2시간씩 2개월을 강의하였다.

고등과 제1회 졸업식을 치루고, 최현배, 신명균, 이병기, 윤복영, 김두봉 등 33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중등과 제2회로 정렬모 등 38명이 수료한다. 중등과 제3회는 150명을, 초등과 제1회로 60명을 모집하였다. 1914년 3월에는 제2회 졸업식이 있었고, 고등과 제2회로 정렬모 등 21명이 졸업하였다. 이 강습소는 1917년 3월 제5회 졸업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러한 강습소의 열기는 곧바로 지방으로 이어졌으며, 강사는 한힌샘의 제자들이 맡게 된다. 1912년 7월에 조선어 하기 강습소가 함경남도 함흥군 사립 숙정여학교 안(강사 이규영), 경상남도 웅천군 사립개통학교 안(강사 장성영), 경상남도 대구군 사립협성학교 안(강사 송창희)의 세 곳에서 개설되었고, 1914년 7월에는 경상남도 동래군 사립동명학교(강사 최현배), 동래군 북면 범어사 안 사립명정학교(강사 권덕규)의 두 곳에서 개설되었다.

한편 1910년 10월에 최남선(1890~1957)이 고서를 수집하여 간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광문회(光文會)를 창립하고, 사업의 하나로 사전 편찬을 시도하였는데, 사전 편찬을 위한 어휘 수집에 한힌샘이 관여했다. 그리고 1914년에 광문회에서 『말모이』를 편찬하자, 그것을 사전으로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일은 선생이 돌아가심으로 하여, 제자들에게 넘겨 주게 된다.

4. 우리말의 연구

한힌샘의 우리말글 연구의 결정판은 『국어문법』(1910)과 『말의 소리』(1914)이다. 『말의 소리』는 우리말의 음성·음운에 관한 연구서인데, 우리말의 음운의 변동 현상에 대하여 최초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김두봉과 최현배에 이르러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되었고,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에 이론적 뼈대가 되었다.

여기서는 『국어문법』의 이론적 바탕과 문법의 체계, 율 구조 분석의 실제 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이 책의 맨 끝에는 ‘이 온 글의 잡이’

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국어문법』의 연구 대상과 방법, 연구의 태도, 용어, 문체의 문제와 당부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다. 먼저 1)에서 연구의 대상이 ‘뜻’이 아니라 ‘듣’임을 밝히고, 4)에서 보편문법의 이론을 참고하여 우리말의 개별문법을 추구한다고 하였다.¹⁹⁾

1) 이 글은 우리 나라 말의 듣을 말하는 것이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나, 어찌하였든지 말을 배우는 글이라. 이러하므로 아무쪼록 우리 나라 말을 흔히 썼노라.

4) 이 글은 今世界에 두루 쓰이는 文法으로 으뜸을 삼아 꾸밈이라. 그러나 우리 나라 말에 맞게 하노라 함이라.

3)과 6)에서는 한힌샘의 과학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자기가 제시한 결론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한힌샘은 문법의 체계를 더 체계적인 것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문법을 끊임 없이 수정했으며, 『국어문법』의 체계도 『말의 소리』에서 바꾸고 있다. 그러나 6)에서 보면 당시의 우리말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얕음을 지적하고 있다.

3) 이 글은 그 말과 그 소리에 옳음을 가리어 쓰노라 함이라. 그러나 이러하게만 쓰기로 정한다 함이 아니요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를지라. 그러나 혹 한 쪽만 보고 그 옳고 옳음과 利하고 害함을 가르지 못하는 말이야 어찌 다 가리리오. 또 바르게 쓰려 하면 그 까닭을 알아 보기가 뚜렷하지 못한 것과 複雜한 것은 俗에 혼한 버릇(習慣)대로 아직 쓰고 차차 바르게 하기를 바라는 바라.

6) 이 글은 우리 나라 말에 맞게 하노라 함이나 더 좋은 길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따를지라. 그러나 그 참 뜻은 캐지 못하고 딴 곳을 파는 말이야 어찌 다 가리리오.

19) ‘이 온 글의 잡이’는 모두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글쓴이가 그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내용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지만, 8)에서는 한힌샘이 한글 전용을 주장하면서도 『국어문법』에서는 완전히 한글로만 되어 있지 않은 까닭을 말하고 있다.

- 8) 이 글은 다 漢文을 섞어 만들었던 것인데 이 제 다 우리나라 말로 고치어 만들 고자 하나 비뻔으로 말미암아 다 고치지 못하므로 틈틈이 漢文이 있음은 이 까닭이라.

『국어문법』의 문법 용어는 독특하다. 당시의 문법서의 용어는 ‘명사, 동사; 주어, 목적어’ 등과 같은 일본식 한자 용어로 되어 있는데, 주시경은 그것을 순 우리말을 쓰거나 우리말을 줄여서 쓰고 있다: 예컨대, ‘임’은 ‘이름’의 준말 이고, ‘움’은 ‘움즉이’의 준말이다. 그리고 ‘임이’는 임자말[주어], ‘남이’는 풀이 말[서술어]을 가리킨다. 이런 용어를 선택한 것은, 수리학의 영향 때문이라 생각된다.

- 2) 줄이어 쓴 말과 새로 이름하여 쓴 말은, 잠시의 눈으로 보시는 이는 이상히 여기 심이 있겠으나 글에는 이러하게 아니할 수 없을뿐더러 外國의 文字를 符號로 쓰는 일도 있거늘 어찌 이는 홀로 그르다 하리오. 또 이를 漢字로 짓지 아니함은 그 漢字의 뜻으로만 풀려 하고 그 일의 뜻은 뜻하지 아니함을 덜고자 함이라.

마지막으로, 『국어문법』을 읽는 이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학문하는 이라면 누구라도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되기에 그대로 들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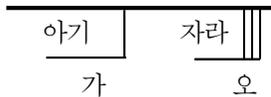
- 11) 또 이 때에 우리 나라에 글 다스리는 일을 맡으신 이들과, 우리 나라 말에 이름 이 높으신 이들과, 우리 나라에 자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맡으신 이들과, 우리 나라 말을 바르게 쓰어 좋은 글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이들과, 우리 나라 말의 字典을 만들고자 하시는 이들과 그 남아 우리 나라 말을 發達하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이들에게 감히 이 글을 드리노니, 이 글이 우리 나라 근래 돌아 다니는 文法들과 다름이 있다고 미리 그 맛이 쓰리라 하여 입에 가깝게도 아니 하시고 곧 버리시지 말고, 연구하실 한 길이로 삼아 깊이 씹어 그 속까지 맛보

시고, 그 잘못됨은 다 고치어 그 맛을 고르게 하여 우리 나라 글이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어리석은 뜻을 감히 말함이로이다.

『국어문법』은 ‘논리적 의미론에 바탕을 둔 풀이말[서술어] 중심의 문법 이론’이다. 한힌샘은 월[문장]의 내용과 형식을 언어 외적인 세계의 일과의 대응 관계에서 파악하는 태도를 보여 주며, 기본적인 월 유형의 설정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의 구조를 그것에 대응되는 일과 관련하여 파악하였을 때, 어떤 일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참여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문법』에서는 그러한 일의 작용은 ‘남이’[풀이말]로 실현되며, 그 일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참여자는 ‘임이’[임자말]와 ‘씀이’[부림말]로 실현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생각의 바탕 위에서 한힌샘은 월의 기본적인 구조로 다음의 두 개의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본드1] 아기가자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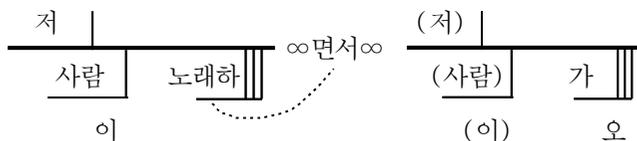


[본드2] 아기가젓을먹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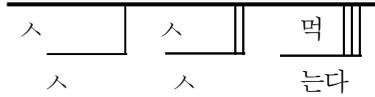


이러한 구조를 기본으로 보았기에, 한힌샘은 기본적인 성분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음의 구조도 생략된 성분을 복원하여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다.

[본드5] 저사람이노래하면서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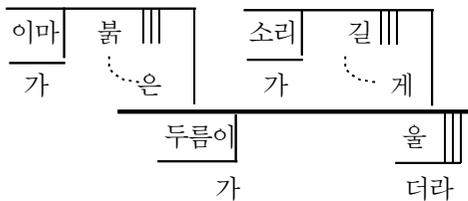
[버금본드 2] 먹는다



그리고 『국어문법』의 통어론의 기술 방식도 아주 논리적이다. 먼저 월을 성분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분과 언어 형식 사이의 관계를 철저하게 1:1의 관계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국어문법』에서는 ‘임이듬[임자말, 주어], 씹이듬[부림말, 목적어], 남이듬[폴이말, 서술어]’이 모두 ‘이’와 ‘빳’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빳’[職權表]은 ‘이’의 기능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그리고 ‘듬’은 반드시 ‘이 + 빳’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임이듬[임자말]은 임이[임자말이 되는 이름씨]와 임이빳[임자말 표지]의 결합으로, 씹이듬[부림말]은 씹이[부림말이 되는 이름씨]와 씹이빳[부림말 표지]의 결합으로, 남이듬[폴이말]은 남이[폴이씨 줄기]와 남이빳[마침토]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남이듬의 경우에 ‘남이빳’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남이듬이 매김마디[관형사절]와 이음마디 또는 어찌마디[부사절]에서는 마침토가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에 매김토와 이음토 또는 어찌토가 실현된다. 이런 경우에 [본드5]에서 보듯이, ‘남이빳’의 자리를 비워 두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음마디에서의 남이듬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매김마디와 어찌마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본드9] 이마가붉은두름이가소리가길게울더라



이러한 기술 방식을 보면, 한힌샘은 분포적으로 보아 동일한 맺음토[어말어미]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 따라 달리 분류하여 인식하였으며, 또 그러한 인식

을 구조의 차이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문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한 월에 대하여 다양한 구조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월의 분석에서 ‘그림표이’와 ‘설명’을 읽고 있노라면, 『국어문법』이 아주 ‘이론적인’ 논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곧 한힌샘은 거의 처음 시도되는 독창적인 체계를 세우면서도, “이것이다!”라고 단번에 결정해 버리지 않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나올까 아니면 저렇게 분석하는 것이 나올까 고민하고, 그러한 고민을 논의 과정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실 『국어문법』의 그림표이를 통한 월의 구조에 관한 논의는, 체계상으로는 산만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덜 정제되어 있다. 그러나 찬찬히 뜯어 보면, 우리말의 월의 구조에 대하여 놀랄 만큼 정확한 통찰력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힌샘의 통찰력은 체계상의 모자람을 충분히 메꾸어 주고도 남는다고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고영근의 다음과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우리는 지금 국어형태론을 재정립시키고 국어통사론의 자리를 확인하여 문법체계를 다듬어야 할 시기에 이르러 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외래언어이론의 홍수에 휘말리더라도 주시경이 창도한 두 줄기의 문법이론을 지주로 삼고 있다면 국어에 바탕을 둔 언어이론 내지 문법이론의 개발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주시경 연구의 어제와 오늘, 주시경학보 제1집, 1979, 143쪽)

5. 제자들

조선어 강습소에서 한힌샘에서 배운 제자들 가운데, 국어학사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겨 놓은 이들로 김두봉(1889~1960?), 김윤경(1894~1969), 최현배(1894~1970), 정렬모(1895~1967)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최현배는 조선어학회를 이끌어 가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을 조선어학회의 활동과 더불어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김두봉과 최현배는 한힌샘의 국어연구학회 제2회 강습소(1910~1911)와 배달말글몸음의 조선어 강습원을 제1회(1911~1913)로 졸업한 동기생이다. 정렬모는 배달말글몸음(=한글모)의 조선어 강습원을 제2회(1912~1914)로 졸업하였다. 김윤경은 상동 사립청년학원(1911~1913)에서 한힌샘에게 배웠다. 김두봉은 의법학교 고등과 1년을 수료하고(1910.7), 김윤경은 보성고보를 졸업하고(1908) 한힌샘에게 배웠고, 최현배는 경성 고등 보통학교를 다니면서(1910.4~1915.3) 김두봉의 손에 이끌려 한힌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김두봉은 한힌샘의 뜻에 따라 사전 만들기에 힘썼으나, 1917년에 상해에 망명하여 『집더 조선말본』(1922)²⁰을 펴낸 이후 독립 운동에 몸을 바쳐 학문을 그만두게 된다. 김윤경과 최현배, 정렬모는 일본에 유학하여 근대적 학문을 배우고 돌아온다. 그리하여 남은 동지들과 힘을 합쳐, 한힌샘이 일구어 놓은 국어학을 더욱 체계적으로 다듬어 정리하는 한편, 월례 발표회와 연구지 발간, 한글 맞춤법의 제정과 우리말 사전의 편찬, 그리고 한글 강습회 등의 일로 바쁜 날들을 보낸다.

1921년 12월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고, 1927~1928년 동인지 『한글』(통권 9호로 중간)을 만들어 국어학자들의 힘을 모아 더욱 활발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벌였다. 1930년부터 월례 연구발표회와 전국 순회 ‘한글 강습회’를 열었다. 1931년 1월 조선어 연구회를 ‘조선어학회’로 고치고, 1932년 학회지 『한글』 첫호를 펴내었다. 1930년 12월 학회 안에 ‘철자법 제정위원회’와 1931년 1월 ‘외래어 표기법 및 부수 문제 협의회’를 두고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여 심의를 거듭한 끝에 1933년 10월 29일(한글날)²¹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책으로 펴

20) 김두봉은 이 책을 한힌샘의 뜻을 받들어 한글로만 썼으며, 한자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못 알아 볼 학술 용어들은 우리말로 고쳐 출판하였다. 상해에서 출판하였는데, 한글 활자도 새로 만들고 그림은 목각으로 새기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이루어졌다.

21) 한글날의 날짜는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1926. 11. 4(음력 9.29, 9월의 마지막날): 가가날. 훈민정음 반포 480돌(8회갑) 기념식.

1928. 11. 11(음력 9.29): 한글날로 고침.

1931. 10. 29: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여 이 날을 한글날로 삼음.

1934. 10. 28: 그레고리오력으로 환산하여 이 날을 한글날로 삼음.

1940. 10. 9: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고, 그 책의 “정통 9월 상한”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 날을 한글날로 다시 바꿈.

내어 발표했다. 이 통일은 1937년과 1940년 두 번에 걸쳐 수정하여 1940년 10월에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펴내었다. 그리고 1934년 여름 학회 안에 ‘표준말 사정 위원회’를 만들어 세 번에 걸친 독회 끝에 1936년 10월 28일(한글날)에 『사정한 조선말 표준말 모음』을 펴내었다. 1940년 6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발표하고, 1941년 1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펴내었다. 그리고 1948년 10월 9일(한글날)에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한글판을 펴내었다.

1914년 한헌샘이 광문회에서 편찬된 『말모이』를 조정하여 사전으로 개편을 시작하고, 김두봉이 이어받은 사전 편찬의 일은, 1929년 10월 31일(한글날)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만들고 다시 시작하였으나, 1936년 3월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해산하고 그 일을 조선어학회에서 맡게 되었다. 1942년 봄 드디어 『조선말 큰사전』 판짜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해 10월 이른바 “조선어학회 수난”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학회의 회원과 직원들이 모두 구속되고, 학회의 모든 일이 중단되었다. 1943년 12월 이윤재 선생이, 1944년 2월 한징 선생이 함흥 감옥에서 세상을 뜨고, 해방이 되었다. 마침내 1947년 10월 9일 『조선말 큰사전』 제1권이 나오고, 1949년에 제2권, 1950년에 제3권, 1957년에 제4권, 제5권, 제6권이 나오므로써 완간된다.

한헌샘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나라와 나라의 말은 생존을 같이 하며, 백성들의 말을 일으키고 그들의 의식을 일깨움으로써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신념 아래, 민중들의 말과 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에 온 몸과 마음을 바친 실천적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제자들은 이러한 스승의 뜻을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이어받아, 그 뜻을 실천함에 조그마한 망설임이나 흔들림도 없었다. 그들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말글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다 함께 행동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꼭 같을 수는 없는 법이다. 같은 뿌리의 다른 가지처럼 그들의 우리말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김두봉과 김윤경은 한헌샘의 업적을 거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더 체계적으로 발전

시킨다. 모든 말마디[어절]를 줄기[실사, 어간]와 가지[허사, 어미/토]로 나누었을 때, 그들은 ‘줄기’와 ‘토’를 각각 하나의 독립된 낱말로 다루었다(분석적 체계). 그러나 최현배는 그리하지 않았다. 그는 토 가운데 임자씨[체언]에 붙는 토는 하나의 낱말[토씨/조사]로 다루고, 풀이씨[용언]에 붙는 토는 풀이씨와 하나로 묶어 한 낱말로 다루었다(절충적 체계). 정렬모는 임자씨에 붙는 토와 풀이씨에 붙는 토를 모두 하나의 낱말로 인정하지 않고, 줄기와 토가 결합된 말마디를 한 낱말로 보았다(종합적 체계).

그리고 해방 이후 그들은 갈라져, 일부는 북한으로 가고, 일부는 남한에 남았다. 김두봉과 정렬모는 북한으로 가고, 김윤경과 최현배는 남한에 남았다. 북한으로 간 언어학자로는 이극로와 홍기문이 더 있다. 이들은 한힌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학문적으로는 한힌샘의 계열에 속한다. 그리하여 한힌샘의 제자들은, 남쪽과 북쪽의 국어학 발전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게 된다.

6. 추모

한힌샘은 많은 할 일을 뒤로 남겨 놓은 채 해외로 망명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1914년 7월 27일 서른 아홉의 나이로 과로로 갑자기 세상을 떴다.

한힌샘은 짧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의 우리말글에 대한 연구의 열정은 그의 제자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져 이미 씨가 싹터 있었고, 우리말글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한글모’의 ‘한글배곧’이란 터에 뿌려져 튼튼히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한힌샘은 우리 민족과 우리말글의 역사가 부여한 일을 충분히 이루어 놓고 간 셈이다.

그러나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아쉬운 것은, 우리말글의 교육에 온 힘을 쏟은 나머지, 정작 선생 자신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국어문법’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하고 간 사실이다. 『말의 소리』(1914)에서는 『국어문법』(1910)의 「기난갈」(품사 분류론)의 수정된 모습을 부

분적으로나마 보여 주고 있다. 물론 그러한 수정된 체계는 김두봉의 『조선말본』에 계승되었으나, 선생 자신의 생각을 보여 주지는 못한다. 이 수정된 「기난갈」이 『국어문법』의 「짚듬갈」의 분석에 적용되었더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하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 때의 추모 일지를 몇 가지 들추어 보자. 먼저 「매일신보」 1914년 7월 29일자에 「조선어학계의 불행」이란 문상기를 실었으며, 재미교민 주보인 「신한민보」 9월 3일자에는 「국문패왕서세」(國文霸王逝世)와 「국어패왕장서」(國語霸王長逝)란 기사로 한힌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신한민보」의 「국어패왕장서」의 앞 부분은 「매일신문」의 문상기를 한글로 옮겨 실으면서, 뒷 부분은 미주에서 활약하던 작가 동해 수부의 감회를 싣고 있다. 동해 수부는 한힌샘의 죽음을 꼬치실만 뽑아 내고 죽정이란 남기는 늙은 누에에 비유하고, 평소 존경하던 한힌샘을 조상하고 있다. 그 뒤 『한글』을 비롯한 여러 잡지와 신문에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힌샘을 추모한 글과 시 그리고 기사를 실었다. 심지어 1936년 『한글』(제4호 제10권)을 회갑기념 특집호로 하고 추모하며, 주시경선생회갑기념식을 배재고등학교 강당에서 갖지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추모는 계속되었다. 몇 개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강연회와 연구발표회는 제외한다). 1946년 주왕산(3남)이 장지영의 서문을 붙여, 『조선어문법-주시경선생유고』를 간행하였다. 1974년에는 한글학회, 민족문화협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한힌샘 서거 60주기 추모식과 흉상 제막식을 가졌다. 1976년에는 한글학회에서 한힌샘 탄생 100돌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고, 『주시경 전집』(상·하)(이기문 편)이 간행되었다. 한힌샘 탄생 110주년이 되는 1986년 10월 9일에는 한글학회에서 충남 천원군 독립기념관 뜰에 한힌샘의 말쭙비[어록비]를 세웠고, 조선일보 12월 20일자는 “한글 중시조 주시경 선생”의 특집 기사를 내었다. 그 해 12월에는 한글학회 안에 “한힌샘 연구 모임”(회장: 허웅)을 만들었다. 한힌샘 탄생 111주년을 맞아 12월 12일에 한글학회에서 『주시경 선생에 대한 연구논문 모음』을 내었고, 도서출판 탐출판사는 그 안에 “주시경연구소”(소장: 김민수)를 세웠다.

한편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도 추모 행사가 있었다. 한힌샘 탄생 80주년(1956. 12. 12)을 맞아 1957년에 언어문학연구소에서 『주시경유고집』을 간행하였고, 1961년에 정렬모의 사회로 탄생 85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다. 1966년에는 과학원에서 탄생 9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 김병제, 홍기문, 이극로, 이기영 등 언어학자와 교육자, 문화인 등 참석하였다. 그리고 1977년 1월 4일에는 한힌샘 탄생 100돌을 맞아 소련 관영 모스크바 방송은 특별프로그래를 마련하고 어문학자로서 애국지사로서 한힌샘의 공적을 기렸다.

참고 문헌

- 외솔회(1971), 나라사랑 제4집(한힌샘 주시경 선생 특집호), 정음사.
김완진·안병희·이병근(1985/1990), 국어연구의 발자취(I), 서울대학교 출판부.
허웅·박지홍(1980), 주시경의 생애와 학문, 과학사.
주시경연구소(1988), 주시경학보 창간호, 탑출판사.